

'일자리 창출' 도민테마제안 공모

13일~8월 31일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등 4개 분야별 접수... 우수제안 11건 선정 포상

전북도는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추진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민테마제안 공모는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행방안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사회도 도민과 함께 이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테마로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계획이다.

따라서 '생활은 일자리 창출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구현'으로 정하고, △기업유치 및 맞춤형인력양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활성화, △사회적경제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4개 분야(테마)로 나누어 제안을 접수하게 된다.

한편, 도는 청년·사회적경제·취약계층 일자리 등 각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6월중, 9회), '신정부 일자리정책과 도 대응전략' 전문가 세미나,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



김상조 채택 무산에 입장 밝히는 민주당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나 의사일정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러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에 대해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정의 주요현안 및 역점방안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매년 도민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해 왔다.

특히, 효자 핸드레일, 민원신청서에

불필요한 행정서류 구비 의무제출 규제개선 등은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표적인 도민참여 정책 사례다.

올해에는 '대선공약 발굴 위한 특별 아이디어 공모',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및 개선사항 도민제안공모', '생활속 불편 규제 개선 도민공모' 등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모로 접수되는 제안은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거쳐 9월 중 우수제안으로 11건을 선정,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하고,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민제안 응모는 도 공모전용 홈페이지 '별별공리(<http://idea.jb.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병원, 가슴기살균제 판정병원 지정

최훈열 도의원, 큰 역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훈열 의원(부안)의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 가슴기살균제 판정병원으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2일 최훈열 위원장은 환경복지국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각종 현안보고 시 가슴기 살균제 사용자의 불편 해소와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도내 가슴기살균제 판정병원 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전북대학교병원과 환경부는 2017년 5월 22일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판정 병원 지정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중순경 피해판정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가슴기살균제 피해 조

사·판정 병원이 없어 도내 피해신청자는 가장 가까운 판정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최 의원은 "가슴기살균제 지방 피해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처사이다"며 "이와 더불어 그 외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정부는 정부지원에서 외면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생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본인이 피해를 입은지 모르고 지내고 있는 잠정적 피해자 찾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자치행정국·소방본부·대외협력국 결산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이월사업 최소화과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이월여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부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김중철 위원장(전주7)은 "공유재산은 취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것

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도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재산 취득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말했다.

송지용 의원(원주1)은 "공유재산 재산구분 변경으로 도로나 하천의 부속물 등 공작물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며, 보다 정확한 기준으로 엄격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지방세 징수 관련하여 이월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아직도 상당하다"며, 이것은 "현재처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처리 미숙 등 도의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정지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만큼 자부재원인 지방세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결산심사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3건의 의안 및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유재산인 전라감영지에 전라감영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물 축조 동의안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조직을 확대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의결 했다.

도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대상 및 기한, 금액 등 지원 기준을 신설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 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환원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은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분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시 정리하여 도민을 위해 적재 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국비 미승급에 따른 이월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하와이 농구 교류단 관광객 유치

하와이 청소년 허리케인팀 27명, 전주 KCC 이지스 주니어팀과 친선경기·관광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청 체육관에서 하와이 청소년 농구클럽인 허리케인팀과 전주 KCC 이지스 주니어팀의 친선경기를 통한 스포츠 교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번 교류는 2016년도 하와이에서 열린 전라북도 관광설명회의 후속조치로 전북 관광홍보대사인 데이비드 립이 진행했다.

데이비드 립은 미국 현지 NBC 케이블 TV 프로그램 사회자로 활동하며 전북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계절별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여 이를 하와이 현지 방송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 뿐만 아니라 하와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도 전통문화, 농어촌

체험상품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와이 관광객 1,100여명이 방문했다.

가족을 동반한 이번 하와이 농구 교류단은 27명 규모로, 9일부터 1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 등을 방문해 한국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한편, 남부시장 야시장에서는 각종 먹거리와 수제품을 쇼핑하며 재래시장의 매력을 한껏 느끼기도 했다.

하와이 청소년 농구클럽인 허리케인팀과 전주 KCC 이지스 주니어팀은 교류경기 뿐 아니라 상대 선수팀을 위해 준비한 자국의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며 우정을 다졌다.

전북 관광홍보대사인 데이비드 립

은 "전북은 한국적인 건축물, 체류 및 맛있는 음식이 있어 하와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번 농구 교류단 또한 매우 만족스런 방문이어서 앞으로 스포츠 교류 관광상품을 통해 전라북도에 더 많은 관광객을 모셔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농구단 유치를 시작으로 올해 유소년 축구단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유희기 관광총괄과장은 "데이비드 립을 통해 하와이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수목적관광으로 2전북방문의 해 3,5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축수산물국 결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물국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농경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농축수산물국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학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2)은 "전북도에서는 방역 및 백신 구입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논 것으로 있는데,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예측과 다르게 발생하기도 하여 예비비 지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작년 구제역 사태는 백신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일부 농가에서 항체 형성률이 0% 달하는 농가도 있어 환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관리 부실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